

7/8

2014

THE ART MAGAZINE  
MISOOLSIDAE

미술시대  
MISOOLSIDAE

21세기 현대작가 시리즈 180

LEE HYE-RYUNG

Jordan Matter, Lee Jae-Sam

Choi Young-Doo, Moon-E





**'하모니즘' 창시자 서양화가**

김흥수 화백 별세



▲ 김흥수

구상과 추상이 공존한 '하모니즘'의 창시자로, 파격적 인생행보로 주목받은 원로화가 김 화백이 6월 9일 오전 3시 15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5세. 유족은 "새벽에 잠깐 깨어나 물을 마신 뒤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1919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고인은 함흥고보 시절인 17세 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했고 일본 도쿄예술대에서 공부했다. 1949년 국전에서 누드군상으로 입선했으나 풍기문란으로 그림이 철거되는 논란을 빚었다. 종군화가로 활동한 그는 1955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1961년 귀국해 국전 추천작가와 심사위원을 지냈다. 서울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등에서 후학을 길렀고 1998년 예술의 전당에서 '김흥수 화백의 꿈나무 교실'을 열어 어린이를 위한 미술 교육에 새 장을 열었다.

'여체가 미의 출발점'이라고 천명한 고인은 여성의 누드와 더불어 불상, 전통춤 같은 한국적 정서를 양대 화두로 삼았다. 그는 단순히 관능적 회화에 머물지 않고 서구 현대미술의 기법과 향토적 감수성을 융합해 독창적 양식을 만들어냈다. 미국에 머물던 시절인 1977년 누드와 기하학적 추상처럼 이질적 요소가 한 화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즘 예술론을 선언한 것이다. 그는 "주관과 객관을 합쳐놓은 것이 하모니즘"이라며 동양의 음양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이 창안한 표현양식에 큰 자부심을 나타냈다. 이를 토대로 1990년 프랑스 퐁상부르 미술관, 1993년 러시아 푸시킨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2002년에는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기념해 동아일보사와 아사히신문 공동 주최로 모교(도쿄예대)에서 동문인 히라야마 이쿠오 화백과 2인전을 가졌다.

적으로 주목받았다. 2002년에는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기념해 동아일보사와 아사히신문 공동 주최로 모교(도쿄예대)에서 동문인 히라야마 이쿠오 화백과 2인전을 가졌다.

**이우환 화백, 파리 베르사이유 궁에서 초대전**

11월 2일까지 열리는 '이우환, 베르사이유' 전에선 17세기 천재 조경설계사 르노트르가 설계한 바로크식 정원에 9점, 박물관에 1점 등 신작으로 '관계항' 10점을 선보였다. 이 전시를 위해 50번 가까이 현장을 찾았다는 작가는 "완벽하게 꾸며진 인공 정원에서 무슨 일이 가능한지를 고민했고 결국 그 완벽을 넘어서려는 게 내 작업"이라고 말했다. 정원 중심축을 따라 초록빛 풀밭과 관목으로 조성된 미로에 군데군데 배치된 작품은 관람객에게 '숨은 보물찾기'를 제안한다. 자연을 상징하는 돌과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철판이 서로 마주 보거나 한데 어우러진 작품, 무



▲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의 정원에서 17일 한국 작가 최초로 이우환 씨의 대규모 개인전이 개막한다. 자연을 상징하는 돌과 산업사회를 상징하는 철판의 만남을 소재로 한 입체작품 '관계항' 10점을 정원 곳곳에 선보였다.

덤처럼 땅을 파서 돌을 안치한 작품, 자연석에 무심히 기대놓은 철근 등이 보인다.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만든 것과 만들지 않은 것, 자연과 문명, 안과 밖 등 양면성을 끌어안으면서 '비움의 미학'을 성찰한 작업이다.

작가는 "이만한 규모로 작품을 하는 기회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라고 고백할 만큼 모든 것을 전시에 쏟아 넣었다. 덕분에 프랑스 정원의 걸작으로 꼽히는 공간에 '여백의 예술'이 스며들어 한몫을 이뤄냈다. 동서 미학의 조화로운 화음을 보여준 작업에 호평이 이어졌다. 르몽드(12일자)는 '돌과 금속으로 된 그의 작품은 장소 위에 군림하거나 정복하지 않는다. 대신 풍경에 삽입되면서 기존에 잘 알려진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새로움을 던져준다. 이번 전시는 베르사이유에서 보기 힘든 가장 모험적이고 시적인 영감을 창조하는 전시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는 리뷰를 실었다. 리처드 바인 '아트 인 아메리카' 편집인은 "재료에 대한 순수성과 물질성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자연과 환경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이 인상적"이라고 평했다. 전시를 기획한 알프레드 파크망 전 퐁피두센터 관장과 카트린 페가르 베르사이유 박물관장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페가르 관장은 "이우환의 작품은 우리를 조용하고 매혹적인 그의 시 속으로 이끈다"고 평했다.

**천경자 화백과 갤러리 현대의 저작권사용 갈등**



▲ 천경자

천경자(90) 화백의 가족이 국내 대형 화랑인 갤러리현대와 일부 작품의 저작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생사가 불투명하다는 소문에 이어 최근

대한민국예술원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면서 국